<상황>

국제 빙상 연맹(ISU)에서 평창 올림픽 준비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.

여러분은 ISU 각 부처 위원장들과 회장. 저는 ISU 스포츠 의학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.

(2분 30초 발표)

<1>안녕하세요. ISU 스포츠 의학 위원회의 위원장 임소희입니다. 본 회의에서 ISU 스포츠 의학 위원회는 선수 안전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안하고자 합니다.

<2>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에 따라 선수 보호 및 현 경기들과 올림픽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ISU RULE을 재검토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<3> 화면의 그래프는 선수와 경기 간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.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 경기가 중단되고, 부상이 심한 경우 선수는 기권하여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대비방안, 즉 선수 안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.

<4>작년 COC 남싱 프리 웜업 중, 선수 안전에 관해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잠시 보겠습니다. (약 8~9초)

이 사고로 두 선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, 당시 의료진은 몇 분간 보이지 않았습니다.

<5~6>선수들은 경기를 강행하였고, 결과는 부진, 다음 경기는 기권,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

선수 안전은 누가 보장 해주어야 할까요?

<7>이 경기에서의 주최 측과 선수 측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자는 주최 측 의료진이 항시 대기 하고 있지 않아 다른 나라의 사설 의료진이 부상 선수들을 치료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. 또 후자는 심각한 부상에도 선수를 출전 강행 시킨 점이 문제입니다.

<8>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연유에는 바로 ISU의 룰의 한계에 있었습니다. “뇌진탕에 대한 보호 관리 조치”가 없고, 웜업을 제외한 경기 중에만 의료진이 대기, 그리고 나라 별 팀 닥터 준비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. 즉, 사후 관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.

<9>또한 RULE 513조에 따르면 레프리는 기권 조치 권한만 있으므로, 사실상 선수 측의 자율에 맡긴 셈입니다.

<10>따라서 RULE을 개정해야 하는데,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주최 측은 의료진을 항시 대기 시키고, 팀 닥터 준비를 의무화 시킵니다. 또한 레프리의 기권 조치 권한에 강제성을 부여합니다.

<11>다음은 미국의 김연아 선수의 현역 시절, 여싱 경기 티켓 판매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보시면 김연아 선수의 부재 전 후의 수익의 차이가 큰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부상 등으로 인한 선수의 부재가 ISU의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<12> 다시 말해, 선수가 안전이 보장되면 관객의 티켓 구매율은 증가하고, 저희 ISU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FINISH>

감사합니다.